

## 오직 순종하라(사무엘상 7:3~4)

### 사무엘상의 하나님 메시지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로 보고 있고 사무엘서의 명칭 역시 사무엘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2대 왕 다윗 이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반응의 결과를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 1. 사무엘상의 내용 구성(1~31 장)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사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1~7 장)

- ①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뚫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자식이 없어 오랜 기간 기도하였고, 그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 ② 엘리 가문의 영적 타락과 국가 전체의 부패로 인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후 엘리와 그 가정이 몰락하게 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 ③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집회와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법궤를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 **(2) 사울왕(8~15 장)**

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효심과 선한 마음으로 잃어 버린 소를 찾아다니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② 처음에는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공적을 세우고 명성이 높아졌으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고 거듭되는 실수와 불신앙적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폐위를 당하고 자녀와 함께 가정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11~15 장)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울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5:23)”라고 하였습니다. 교만 그리고 불순종은 결국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 **(3) 하나님께 합당한 왕으로 예선 된 다윗(16~31 장)**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예선하여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16:1~2)

① 하나님은 자세와 반응이 나쁜 사울왕을 버리시면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16~17 장) 다윗은 그 후 사울왕의 궁정에서 봉사하며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여러 훈련과 주변의 시련을 거둬들이면서 능력을 키워 갔습니다. 특히 다윗의 열심 신앙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쳐 이김으로 그 명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17 장)

② 반면 사울왕은 자기 위상이 약화됨을 알고 다윗을 시기하여 끊임없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덕분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18~31 장) 그 후 사울왕의 그의 가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역사의 뒤안 길로 살아지게 되고, 다윗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예배의 반응이 좋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반응이 좋아야 합니다.

## 2. 사무엘상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 (1) 사무엘은 예수님의 좋은 예표입니다.(7:15~17, 15:22~23)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① 사무엘은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7:15).”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한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②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7:17).” 사무엘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제단 쌓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12:23) 그러므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③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15:22~23) 사무엘은 그 시대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15:22).”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좋은 예표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 (2) 요나단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18:1)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지만 태도가 좋았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18:1)”고 하였습니다. 당시 요나단은 왕족으로서 일개의 목동 출신인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위와 환경을 초월한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마 20:28) 우리도 요나단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3. 사무엘상의 중요한 영적 교훈

사무엘상에는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다양하게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중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엘리 가정의 신앙 정책 실패(삼상 2:29~34)

엘리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자녀들에게 정확히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떠나시므로 처참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정의 신앙 정책과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2) 사무엘을 통해 교훈하는 기도의 중요함(12:23)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12:23).”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고 그는 또한 기도로 그 시대를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성숙한 신앙을 교훈합니다.

#### (3) 사울왕의 교만과 말씀 거역함, 그에 대한 죄의 결과(15:17~23)

늘 겸손함으로 살아도 부족한데 사울왕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이어서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결국 왕권을 빼앗기고 화려했던 왕가가 몰락하게 되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역을 결코 용서치 않으시고 반드시 다스리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 **(4) 전쟁의 유무는 하나님께 속함(17:47)**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17:47).” 우리의 구원과 평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쟁은 없고 평화가 유지 되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 **(5) 요나단과 다윗의 변함없는 우정(삼상 18:3~5)**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18: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고 다윗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며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요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이 되고 성도와 교회와의 사랑이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 **(6) 다윗의 견고한 신앙(16~31 장)**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울왕으로 부터의 위협 중에 보호받고 승리의 길을 가는 다윗의 견고한 신앙을 교훈합니다.

### **◎ 결론**

사무엘상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내용 구성과 메시아의 예표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선행과 악행, 순종과 거역에 대한 결과는 각각 그 행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불변의 진리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술한 신앙 정책이 아닌 확실한 신앙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교만이나 거역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밀어내야 합니다. 다윗처럼 악조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미래를 열어가듯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과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다스리신다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